

2024년 연구보고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교육·취업

2025. 3.



<https://sri.kostat.go.kr>



9 772288 116605 0 8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12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교육·취업

안상건 · 현대환 · 신영규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통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는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 경영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에 국가통계연구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국가통계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국가통계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연구보고서에는 국가통계 생산 방식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도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연구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통계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체계 연구를 통해 최신 AI 기술을 통계 생산 과정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모바일조사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생산조사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제적 농업 통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통계생산 시스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통계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비확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연구를 통해 응답자 편의를 제고하고 통계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범죄분류체계의 국내 범죄통계 활용 연구, 국내 안전영역 통계·데이터 동향 연구는 안전 및 범죄 분야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ESG DB 확대 및 활용방안 연구, SDG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표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통계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국내 삶의 질 연구동향 분석,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 삶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연구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인구 주요 지표 서비스 방안 연구, 기후변화대응 평가 지표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통계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통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책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이 국가통계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국가통계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코호트 분석의 이론적 검토	4
제1절 코호트 분석의 개념	4
제2절 코호트 분석의 접근 방식	5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 개요 및 분석 자료	9
제3장 생애과정 이행 분석: 교육·취업	15
제1절 교육	15
제2절 취업	22
제3절 자립	37
제4장 결론	40
참고문헌	43
Abstract	44

요 약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 고령화, 자동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구조 변화를 겪어 왔다. 이처럼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경향과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인기에 진입하는 청년의 교육과 취업에 시대별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약 40년 동안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는 사상 최저인 0.72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저출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청년기를 중심으로」의 부문으로서 ‘교육·취업’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통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코호트별 교육·취업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첫째,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80~84년생 코호트부터 여성의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이 남자를 추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연령대에서 출생 코호트가 늦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첫 취업 소요 기간은 최근 코호트에서 길어지는 추세다.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은 세대가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비율은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넷째,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20세 이후 2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교육 기회 충족 비율과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출생 코호트인 90~94년생의 20대 후반 시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다른 코호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교육·취업 부문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위해 지표 중심의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추후 본 연구 결과로 포착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주요 용어 : 코호트, 청년기, 교육, 취업

제 1 장

서 론¹⁾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성장 단계는 심리학적 발달 관점에서 신생아기, 유아기, 초기 아동기, 중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8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Erikson, 1950), 그중 청년기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시기로 만일 이러한 친밀감 조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년기를 생애주기에서 이행해야 할 과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이 완료되고, 직업 및 배우자를 선택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출산 및 양육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Cordón, 1997; Halfon et. al., 2018; Sironi & Furstenberg, 2012).

그러나 최근의 세대는 이러한 생애주기 과업 이행이 이전 세대보다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영란 외, 2017; Cobb-Clark, 2008; Halfon et. al., 2018).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유예하거나 휴학을 하는 등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도 보인다.²⁾ 생애주기 과업 이행이 지연되면 이후의 단계 이행도 지연되어 가족 형성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나타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대 및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경제위기가 온 경우와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특별한 사건 없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고용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 세계화, 탈산

1) 이 연구보고서는 2024년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청년기를 중심으로」(조성호 등)의 교육·취업 부문으로서 작성하였다.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2007년~2023년), 천영민·정승철(2018).

업화, 인구 고령화, 자동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구조 변화를 겪어 왔다. 이처럼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경향과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인에 진입하는 청년의 교육과 취업에 시대별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시대와 비교하면 최근의 자동화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환경을 완벽히 바꾸어 놓았다. 이와 더불어 교육 기회와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성별 격차의 축소 또는 성별 수준의 역전 현상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년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더 나아가 생애 소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예상되는 생애주기별 과업인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의사결정 및 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_청년기를 중심으로」(조성호 외, 2024)의 한 부문으로서 청년기의 ‘교육·취업’ 부문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통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세대별로 청년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 동거 청년 비율’ 지표 등을 통해 청년기의 ‘자립’ 영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경향과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의 생애과정 중 ‘교육·취업’ 부문에 대한 코호트별 경향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 대상 연령대는 청년기 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19~34세 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15~29세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되 활용자료의 가용성과 관심지표의 성격에 따라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도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분석하는 연령 구간 또한 활용자료의 가용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본격적인 코호트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코호트 분석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코

호트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의 코호트 분석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 개요와 분석에 활용된 자료 및 분석 지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교육, 취업 부문에 관한 본격적인 생애과정 이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 교육 기회 충족, 전공과 직업 일치도, 취업 영역에서는 고용률,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 첫 취업 전 소요 기간, 첫 일자리 취업 연령, 종사상 지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대한 지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취업 후 자립과 관련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자녀의 비율 및 경제활동 비율 지표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주로 통계청 승인통계와 그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제 코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이루어진 패널 조사 자료 등이 필요하고, 만일 패널 조사 자료가 있다고 해도 표본 수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전수자료 및 대규모 표본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장

코호트 분석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코호트 분석의 개념

Ryder(1965)의 연구는 코호트 분석의 기초를 다진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코호트 분석은 개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맥락(contex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코호트는 '같은 기간에 태어나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로 정의하며,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는 연령 효과(age effect)와 기간 효과(period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 효과는 생물학적 나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로서, 주로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포함되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생리적 변화의 경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이 쇠퇴하게 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감소한다. 이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산업 환경에서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생리적 노화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 하나로, 일관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발현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심리적 변화의 경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학습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며,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으로 점점 고착화되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기간 효과는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에게 역사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쟁, 경제위기, 정치적 변동과 같은 사건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방향성이 각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앞서 연령 효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거나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한 세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세대는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도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큰 사회적 변화는 동시대의 모든 연령대가 경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간 효과의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가 소득의 분배,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등에 광범위하게 미친 영향이나 또는 COVID-19 팬데믹이 모든 연령대의 건강·경제 및 사회활동에 미친 영향 등도 기간 효과로 볼 수 있다.

코호트 효과에서 코호트는 사회적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설명되며, 사회적 변동은 각 코호트가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젊은 성인들이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 직업, 거주지, 가족 등 특정한 삶의 방식에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변화에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제1차 세계대전이나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특정 코호트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 코호트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독특한 태도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각 코호트는 출생 연도나 경험한 주요 사건에 따라 차별화되며, 이는 사회적 역할 배분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경제적 번영이나 불황, 전쟁이나 평화 시기에 사회에 진입한 코호트는 그들의 일생 동안 다른 코호트와는 다른 경로를 밟게 된다. 이는 각 코호트가 겪는 직업적 경험, 교육 수준, 결혼 시기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큰 사회적 변동 시기에 형성된 코호트는 이후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20~193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의 경우에는 청년기부터 흡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흡연율이 높지만, 이후 세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 등을 코호트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ason과 Fienberg(1985)는 연령 효과, 기간 효과, 코호트 효과가 서로 독립적이 아니므로 식별에 있어서 어려움(identification problem)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³⁾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효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정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특정 연도에 특정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는 연령 효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연도의 사회적 변화(COVID-19 등)로 인하여 전 연령대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기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동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상기 변화를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코호트 분석의 접근 방식

코호트 분석은 접근 방식에 따라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과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동일 시점에 서로 다른 코호트를

3) A를 연령 효과, P를 기간 효과, C를 코호트 효과라 했을 때, A=P-C라는 선형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비교하여 연령 차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의 특정 행동 패턴을 같은 시점에 비교하는 것이다. 후자는 동일한 코호트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난 집단을 20대, 30대, 40대에 걸쳐 추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코호트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문혜진(2010)의 연구는 횡단면 분석으로서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애 과정과 역사 및 사회적 변화에 착안하여 1930~1979년 출생 코호트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고, 성인 이행 과정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1930~1979년에 출생한 9,001명이다. 1930년대를 코호트 1로 하여 1970년대를 코호트 5로 구분하여 각 생애 단계 이벤트별 이행률, 기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2-1> 문혜진(2010) 연구에서의 코호트 접근 방식

event	cohort	category									
		성별									
		남성					여성				
이행률	기간	시점 (10분위)	시점 (5분위)	시점 (중위)	이행률	기간	시점 (10분위)	시점 (5분위)	시점 (중위)		
교육 종료	1930년대	93.6	13	13	17	-	62.0	8	11	14	-
	1940년대	97.5	13	13	19	-	86.4	6	13	14	-
	1950년대	99.6	13	14	19	-	99.0	9	13	16	-
	1960년대	99.3	11	17	20	-	99.9	7	16	19	-
	1970년대	99.7	9	19	25	-	99.9	7	19	21	-
첫 직장 진입	1930년대	94.2	13	15	20	20	79.7	22	15	17	19
	1940년대	96.9	13	15	21	21	86.4	26	15	19	20
	1950년대	98.2	11	16	21	21	92.1	17	15	19	20
	1960년대	99.0	9	18	23	23	96.1	7	17	20	20
	1970년대	95.2	9	18	23	24	96.1	6	18	21	21
첫 결혼	1930년대	99.7	11	20	26	26	99.8	8	17	20	21
	1940년대	99.5	8	23	27	27	100.0	8	19	23	23
	1950년대	97.8	8	23	27	27	98.9	7	20	24	24
	1960년대	91.0	7	24	27	28	97.2	7	21	25	25
	1970년대	66.5	6	21	25	-	84.4	6	20	24	-
첫 출산	1930년대	98.2	12	22	27	28	97.6	9	19	22	23
	1940년대	97.6	9	24	28	28	99.0	9	20	24	24
	1950년대	98.2	8	25	28	28	98.7	7	21	25	25
	1960년대	89.4	7	25	29	29	94.8	7	22	26	26
	1970년대	20.2	7	23	27	-	54.9	7	22	25	-

출처: 문혜진(2010), p.370.

문혜진(2013)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경험(일자리 진입 과정 및 일자리 배열)을 동일 시점에서 서로 다른 청년 코호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90년대 코호트와 2000년대 코호트로 구분하였다. 90년대 코호트는 1990~1991년 정규 교육과정 졸업 혹은 중퇴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2000년대 코호트는 2000~2001년에 같은 과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 코호트가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증가,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 노동경력 상의 이동 증가, 실직 기간 증가 등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문혜진(2013) 연구에서의 코호트 접근 방식

event		cohort	category		
			전체	학력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 이하
노동시장 경험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없음	1990년대	16.7	15.1	18.8
	1~3개월		35.9	30.5	42.4
	4~6개월		44.0	37.5	51.8
	7~12개월		54.8	47.1	64.3
	13~18개월		65.7	57.7	75.5
	19~24개월		69.2	61.4	78.6
	25~36개월		77.6	72.8	83.5
	37~48개월		85.3	81.6	89.7
	49~60개월		90.1	87.1	93.8
	61~71개월		92.3	89.3	96.0
	72개월 이상	100.0	100.0	100.0	
	없음	2020년대	22.2	20.5	22.7
	1~3개월		42.6	30.7	46.6
	4~6개월		45.5	33.0	49.6
	7~12개월		49.7	36.4	54.2
	13~18개월		59.4	45.5	64.0
	19~24개월		64.5	50.0	69.3
	25~36개월		73.9	58.0	79.2
	37~48개월		80.7	68.2	82.6
	49~60개월		84.7	73.9	86.4
61~71개월	86.9		77.3	90.2	
72개월 이상	100.0	100.0	100.0		

출처: 문혜진(2013), p.212.

김미경 외(2014)는 코호트(세대)별 주거소비의 변화 양상을 시계열로 파악하고 세대 간의 주거 소비수준을 반영한 장래 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일견 중단면 코호트 분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개 연도의 횡단면 코호트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0년의 간격을 두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자료와 2010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적은 표본으로 인하여 추정의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1998~2000년의 3개 연도와 2008~2010년의 3개 연도를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령 구간을 0세부터 5세 간격으로 80세 이상까지 구분하여 2000년 시점과 2010년 시점을 비교하였다.



자료: 김미경 외(2014), p.38.

<그림 2-1> 김미경 외(2014) 연구에서의 코호트 접근 방식

계봉오·황선재(2016)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 사회이동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이동에 대한 횡단면 코호트 분석을 하였는데, 사회이동은 응답자와 부모 간의 직업 지위 변화를 세대 간의 사회이동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인은 현재 직업, 부모는 만 14세 무렵의 아버지 직업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 사회이동 조사’ 자료는 2008년에 1943~55년생, 2009년은 1956~65년생, 2010년은 1966~75년생, 2011년은 1976~86년생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1943~86년생 7,611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본인의 직업과 부모의 직업을 모두 응답한 5,875명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표 2-3> 계봉오와 황선재(2016) 연구에서의 코호트 접근 방식

event	cohort	category					
		직종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농업
본인 직업	1943~1955년	7.4	16.9	31.7	11.6	17.6	14.8
	1956~1965년	11.2	31.0	28.5	11.6	13.8	3.5
	1966~1975년	15.3	41.9	19.6	9.3	12.9	0.9
	1976~1986년	15.0	56.6	12.1	8.0	7.9	0.4
부모 직업	1943~1955년	4.3	8.2	13.1	3.2	4.2	66.9
	1956~1965년	8.3	9.5	16.6	6.4	7.5	51.7
	1966~1975년	8.1	10.8	23.8	8.0	9.9	39.5
	1976~1986년	12.0	13.2	31.8	9.8	15.7	17.4

자료: 계봉오와 황선재(2018), p.13.

제3절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 개요 및 분석 자료

1. 코호트 개요

코호트 분석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 변화가 개인의 행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각 코호트는 그들이 경험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는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청년기를 중심으로」(조성호 외, 2024) 연구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선정한 바와 같이 출생년 기준 5년 간격으로 1970~1974년생, 1975~1979년생, 1980~1984년생, 1985~1989년생, 1990~1994년생을 주로 살펴보고 일부 자료 가용성에 따라 1995~1999년생까지도 살펴보려 한다. 다만, 2000년대 코호트는 현재 시점에서 자료의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70년대 이전 코호트는 자료가 미비하므로 제외한다.

본 연구의 코호트 분석은 동일한 코호트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면 분석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많은 코호트 분석이 횡단면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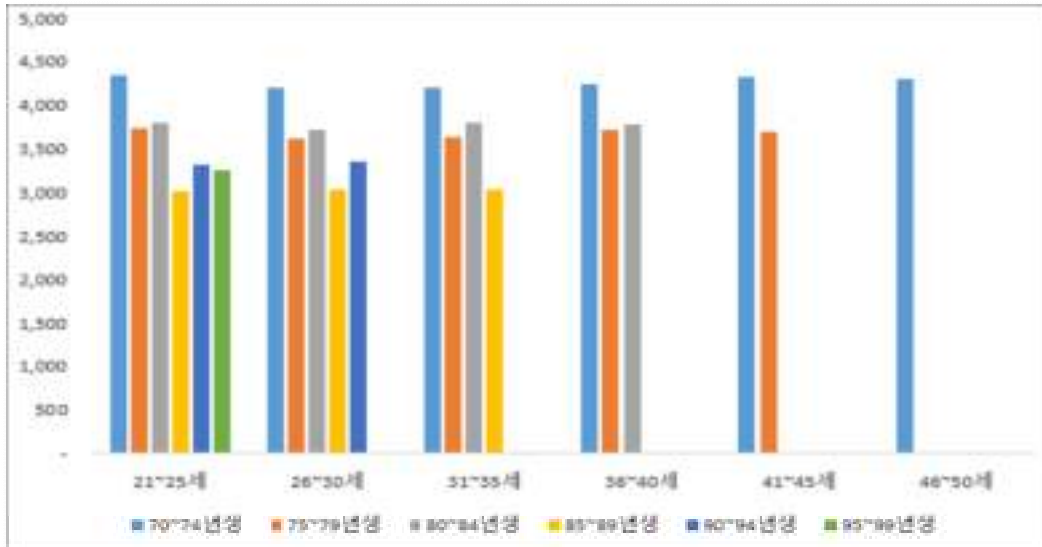
석, 즉 동일한 시기의 코호트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분석은 한 시점에서의 코호트별 비교만이 이루어져 코호트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면 분석을 주로 시행하여,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코호트별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연구에서의 코호트는 실체가 아닌 가공의 코호트(synthetic cohort)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코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로 구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생애주기별 구축이 가능할 정도(30년 이상)로 패널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 있다고 해도 패널 조사의 가장 큰 단점인 패널 탈락(attrition)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될수록 표본을 추가하게 되어 모수(universe)의 대표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자료를 가공하면 할수록 특성별 표본 수도 감소하여 분석에 필요한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가공 코호트의 경우 조사 주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생애주기 구축이 가능하며, 패널 탈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수의 대표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또한 분석자료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전수자료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표본조사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인구 등은 전수자료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 등의 경우는 표본자료에서만 추출이 가능하므로 표본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인구의 20%(또는 10%) 표본자료를 사용하므로 표본 수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제 코호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코호트별 인구수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 초반에서는 70~74년생 코호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75~79년생 코호트는 70~74년생 코호트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84년생 코호트에서 약간 증가하고, 다시 85~89년생 코호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94년생 코호트에서 약간 증가하고, 이후 95~99년생 코호트에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큰 차이 없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연령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주: 내국인(외국인 제외) 기준

<그림 2-2> 본 분석의 코호트별 전체 인구수

2. 분석 자료 및 지표

가. 분석 자료

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은 국가의 기초 인구 통계를 제공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구·주택 관련 기본 정보를 파악함에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로 구성되며, 전수 조사에서는 기본 인구 정보를, 표본 조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인구 및 사회경제적 정보를 조사한다. 전국 가구와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15년에 등록센서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수부문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표본부문은 5년 주기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공한다. 조사항목은 인구(연령, 성별, 학력 등), 가구(가구 유형, 거주 형태), 주택(건물 유형, 보유 형태, 거주 상태) 등 다양한 인구 및 가구 특성을 포함한다.

<표 2-4> 인구주택총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인구 특성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출생지, 국적, 혼인 상태
가구 특성	가구 유형(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부와 자녀 가구 등), 세대 구성, 거주 형태
주택 특성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주택 등), 주거 면적, 보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건물 연식, 주택 설비(수도, 전기, 난방 등)
이동 정보	거주지 이전 여부, 이전 시기, 이전 이유
기타	장애 여부, 차량 소유 여부

2)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실업률, 고용률 등)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전국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실시하는 월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가 있다. 본조사에는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며, 부가조사로는 근로형태별, 고령층, 청년층,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조사 주기는 매월 단위이며, 연간 부가 조사는 특정 시점에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고용 상태(취업, 실업), 직종, 산업, 근로 시간, 임금, 고용 형태, 구직 활동 여부, 취업 시간, 근로 경력 등 다양한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다.

<표 2-5>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여부(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상태 변화
취업 관련	직업, 산업, 직위, 근로 형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취업 시간, 근무 시간, 임금 수준
구직 활동	구직 여부, 구직 기간, 구직 방법, 구직 의지, 이전 직장 정보
근로 환경	근무 시간, 추가 근무 여부, 근로 계약 형태
경제활동 외 활동	가사, 학업, 육아 등 경제활동 외 활동 이유

3)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 및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여 사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별로 특정한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며, 주요 조사 분야는 가구와 가족, 보건, 교육, 소득과 소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다. 전국 가구와 만 13세 이상 가구원 중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며, 특정 주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조사된다. 조사항목은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가정 및 가족생활, 여가 활동, 소비 형태, 사회적 지원, 환경 인식 등 사회적 현상과 의식을 반영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표 2-6> 사회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가족 및 가구 생활	가구 유형, 가족 구성원 관계, 가족생활 만족도
건강 및 보건	건강 상태, 건강 관리 방법, 주된 의료기관 이용 형태
교육 및 학습	학력, 교육 수준, 학습 활동 참여 여부, 자녀 교육 방침
소득 및 소비	가구 소득 수준, 소비 지출, 소비 지출 항목, 저축 비율
여가 및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유형, 여가 시간, 문화 활동 참여, 여가 만족도
주거 및 생활 환경	주거 만족도,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주거 환경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사회적 지원, 자원봉사 참여 여부, 사회 참여 활동, 이웃 관계
환경 인식	환경 문제 인식, 환경 보호 실천, 환경 관련 교육 참여

4) 국내인구이동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 규모와 이동의 방향, 이동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이 거주지를 옮길 때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되는 보고통계로 해당월 1일~말일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익월 말에 매월 공표된다.

<표 2-7> 국내인구이동통계 내용

구분	내용
보고항목	전입연월일, 전입지, 전입구분, 전입사유, 전출지, 전출구분, 전입자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 여부
작성항목	이동자 수, 이동 건수, 이동률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전입사유별, 규모별 등)

나. 분석 지표

청년기의 생애주기 과업 이행 연구에 있어 국내외 관계없이 교육 및 취업 영역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청년기를 중심으로」(조성호 외, 2024)의 부문으로서 ‘교육·취업’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는 경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교육 수준 지표를 통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비율을 알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작성한다. 이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취업은 고용률 지표로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한 세대에 따라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표를 작성하고,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지표도 작성한다. 취업에 이르는 경로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일자리 질(quality)을 나타내는 비정규직 규모, 자영업자 비율을 제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기회에 따른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자립 영역에서는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지표를 작성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제 3 장

생애과정 이행 분석: 교육취업

제1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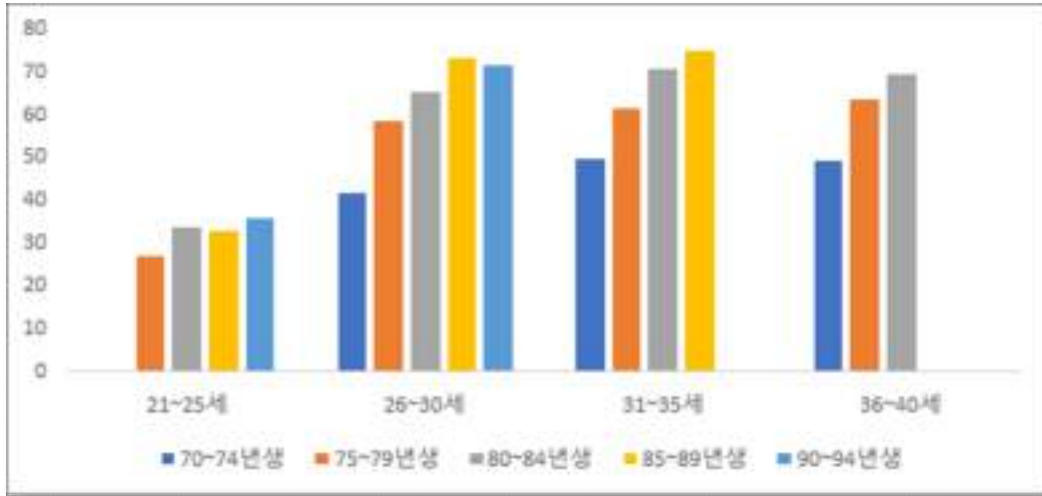
1. 교육 수준

교육 수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대학 졸업 이상’ 비율과 ‘대학원 진학 이상’ 비율을 산출하였다. 대학 졸업 이상은 조사시점에 고등교육(대학·대학교·대학원) 졸업자로 대학원 이상 재학·수료·휴학·중퇴자도 포함되며, 대학원 진학 이상은 대학 졸업자 중 “교육 정도가 대학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대학원 중퇴자도 포함한다.

인구총조사 데이터는 5년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각 코호트의 연령구간을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인구총조사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표본 오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동일 변수의 추정치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도출될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그림 3-1>에서는 코호트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코호트별 대학 졸업 이상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코호트에서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1~25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은 75~79년생 코호트에서 27.0%였지만, 80~84년생과 85~89년생 코호트에서는 각각 33.9%와 33.0%였고, 90~94년생 코호트의 경우 35.8%로 가장 높았다. 이후 나이가 들수록 모든 코호트에서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의 증가가 발견되는데 36~40세가 되면 70~74년생은 49.2%, 75~79년생은 63.6%, 80~84년생은 69.4%까지 높아졌다. 코호트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35세 기준으로 85~89년생 코호트는 74.7%인 반면, 70~74년생은 49.6%로 가장 낮았고, 75~79년생과 80~84년생 코호트는 각각 61.6%와 70.7%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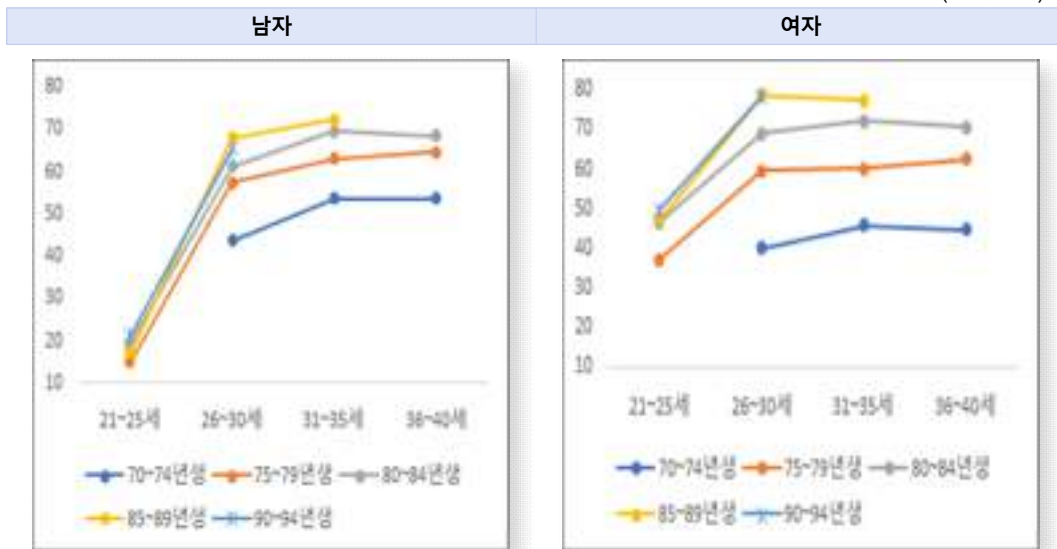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

<그림 3-1> 코호트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코호트에 따른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향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남자와 여자의 변화 패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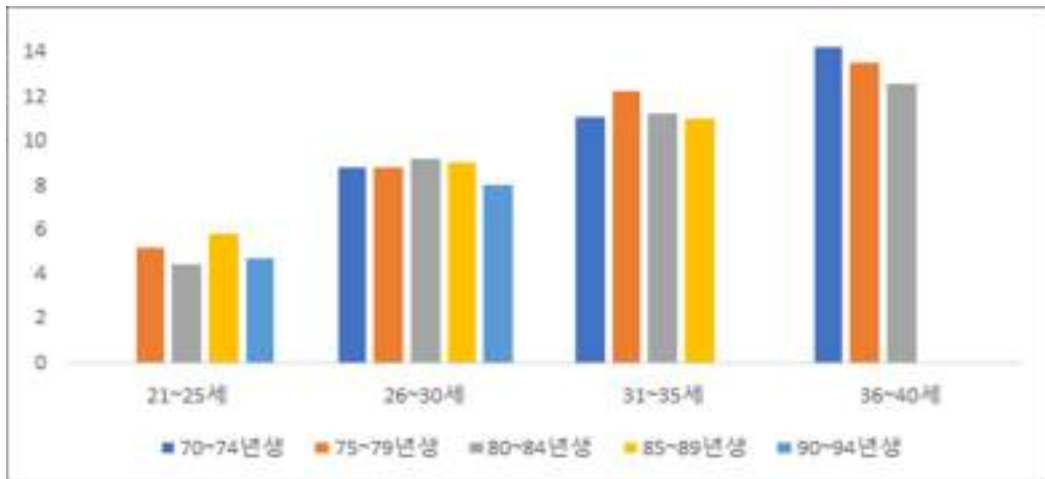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

<그림 3-2> 코호트별 및 성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그림 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자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26~30세에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 후,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남자의 경우 26~30세에 큰 상승을 보인 후, 31~35세에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코호트별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70~74년생 및 75~79년생 코호트는 남자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지만, 80~84년생 이후 코호트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31~35세 기준으로 80~84년생 가운데 대학 졸업 이상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69.4%와 72.1%였고, 85~89년생의 경우 각각 72.2%와 77.3%였다. 90~94년생 코호트의 경우 26~30세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65.3%와 78.5%였다. 즉, 늦게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성별에 따른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중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을 코호트별로 비교하기 위해 전체 대학 졸업자 가운데 대학원 진학 이상 교육 정도의 비율을 추정하였다. <그림 3-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학 졸업자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코호트에서 26~30세 기준 대학원 진학 이상 학력자 비율은 8~9% 수준이었고, 31~35세에는 11~12% 수준이었다. 36~40세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14.2%로 가장 높았고, 75~79년생과 80~84년생 각각 13.6%와 12.6%였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중후반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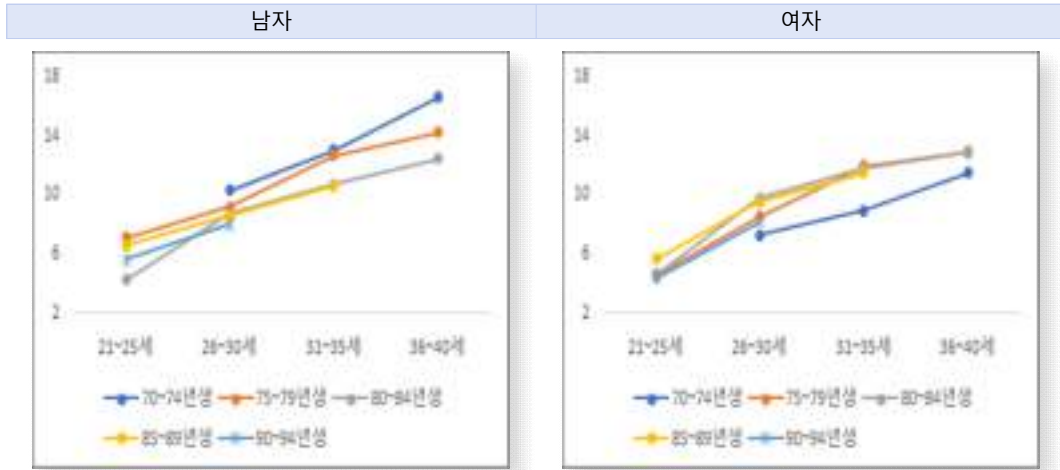
주: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

<그림 3-3> 코호트별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이상 비율

<그림 3-4>에서는 코호트별 및 성별로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이상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70~74년생과 75~79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대학원 진학 비율이 여

자보다 높지만, 80~84년생과 85~89년생 코호트에서는 여자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1~35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0~74년생과 75~79년생의 경우 남자의 대학원 진학 비율은 같은 코호트의 여자보다 각각 4.1%p와 0.7%p 높았다. 그러나 80~84년생과 85~89년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1.1%p와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

<그림 3-4> 코호트별 및 성별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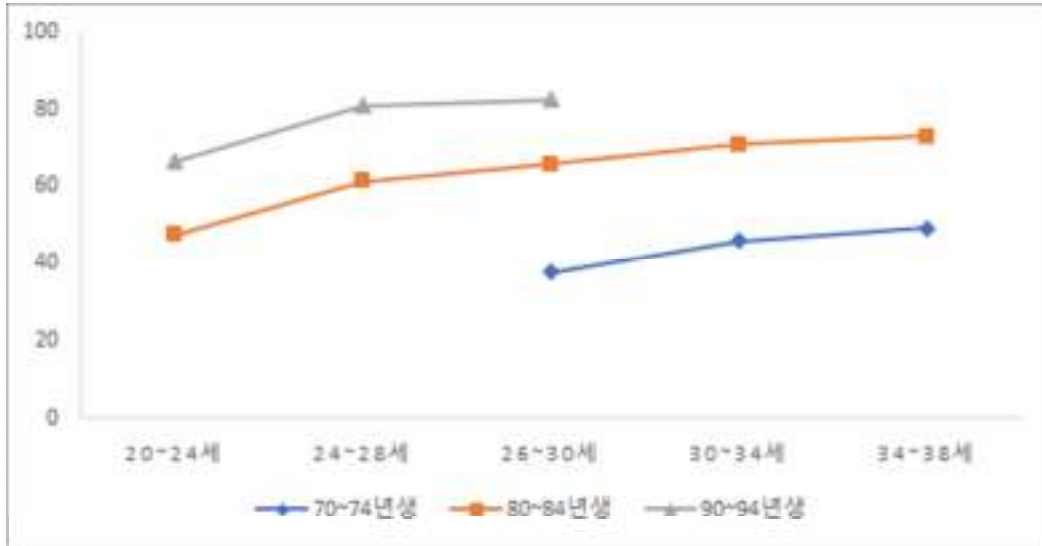
2. 교육 기회 충족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은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에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교육과 훈련’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회조사는 부문별로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고,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별 비교를 위한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70~74년생, 80~84년생, 90~94년생 등 3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대 역시 20~24세, 24~28세, 26~30세, 30~34세, 34~38세 등 5개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은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코호트와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서 37.8%, 30~34세에서 45.8%, 34~38세에서 49.2%로 나타난다.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7.5%, 24~28세에 61.5%, 26~30세에 65.6%, 30~34세에 70.9%, 34~38세에

73.0%로 나타난다. 90~9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66.5%, 24~28세에 80.9%, 26~30세에 82.5%로 나타났고, 동 코호트는 젊은 연령대에서도 매우 높은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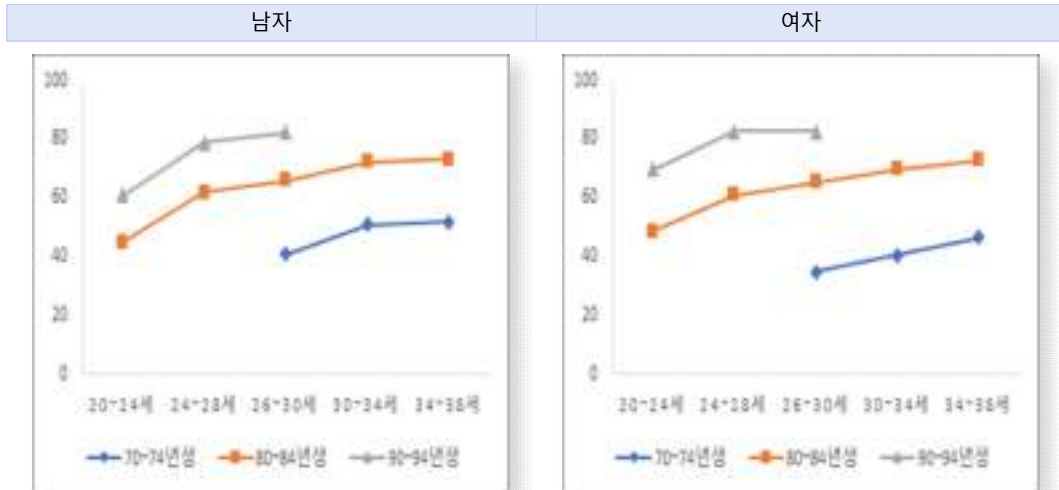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그림 3-5> 코호트별 교육 기회 충족 비율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그림 3-6> 코호트별 및 성별 교육 기회 충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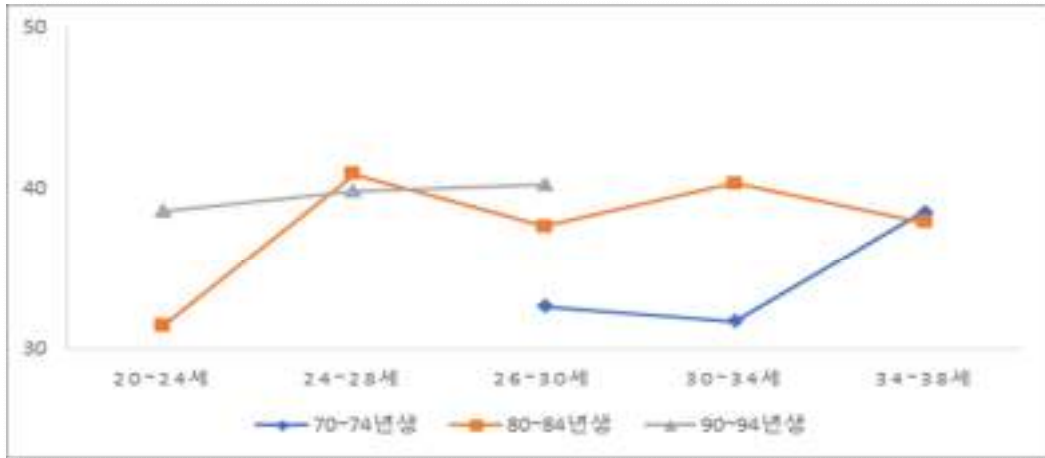
<그림 3-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0~74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이 높았으나, 90~94년생 코호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앞서는 모습이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 40.8%, 30~34세에 50.9%, 34~38세에 51.8%로 나타난다. 80~84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44.8%, 24~28세에 62.0%, 26~30세에 66.0%, 30~34세에 72.1%, 34~38세에 73.1%를 기록했고, 90~9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61.0%, 24~28세에 78.8%, 26~30세에 82.2%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 34.7%, 30~34세에 40.6%, 34~38세에 46.4%로 나타난다.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8.8%, 24~28세에 61.0%, 26~30세에 65.2%, 30~34세에 69.7%, 34~38세에 72.8%를 기록했다. 특히, 90~94년생 코호트는 20~24세와 24~28세에 각각 69.7%와 82.8%로, 남자보다도 높은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을 보였다.

3. 전공과 직업 일치도

코호트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에 실시한 사회조사 ‘교육과 훈련’ 부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앞서 교육 기회 충족 비율 지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조사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70~74년생, 80~84년생, 90~94년생 등 3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대 역시 20~24세, 24~28세, 26~30세, 30~34세, 34~38세 등 5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 중 전공과 직업이 ‘매우 일치’와 ‘일치하는 편’의 합을 일치 비율의 분자로 사용하였다.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그림 3-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0~74년생 코호트는 초기에는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20대 초반부터 전공-직업 일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먼저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 32.7%, 30~34세에 31.8%, 34~38세에 38.6%를 기록하여 젊은 시기에는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31.5%, 24~28세에 40.9%, 26~30세에 37.7%, 30~34세에 40.4%, 34~38세에 37.9%를 나타냈다. 이 코호트는 연령대가 변화하면서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30대 중반까지 비교적 높은 일치 비율을 유지한다. 90~94년생 코호트의 전공-직업 일치도는 20~24세에 38.7%, 24~28세에 39.9%, 26~30세에 40.3%로 나타나며, 초기부터 높은 일치 비율을 기록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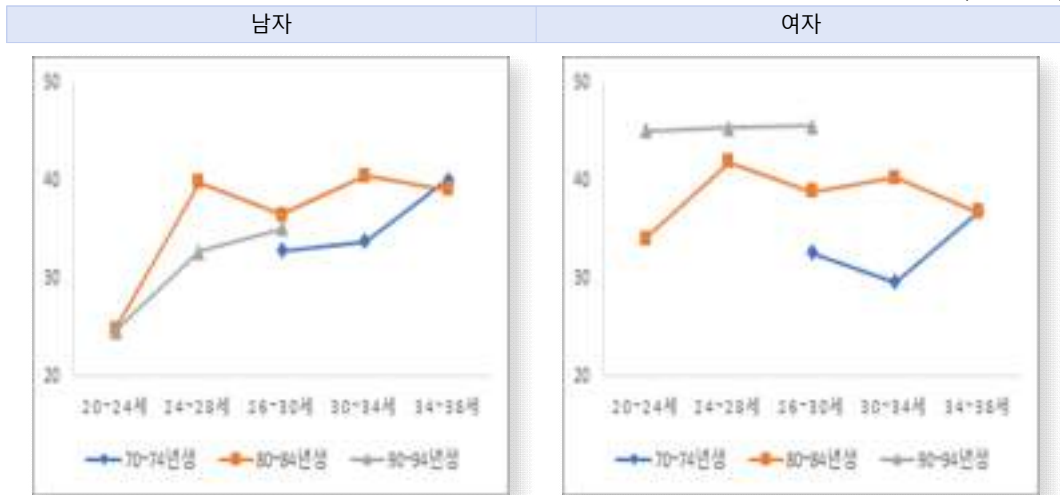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그림 3-7> 코호트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전공-직업 일치도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초기부터 높은 일치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자와 여자 모두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 32.8%, 30~34세에 33.8%, 34~38세에 40.1%로 나타났고,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24.8%, 24~28세에 39.8%, 26~30세에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그림 3-8> 코호트별 및 성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

36.5%, 30~34세에 40.4%, 34~38세에 39.0%였다. 90~94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24.5%, 24~28세에 32.7%, 26~30세에 35.1%를 나타내며 80~84년생 남자 코호트보다 낮은 일치 비율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6~30세에 32.6%, 30~34세에 29.6%, 34~38세에 36.8%로 같은 코호트의 남자들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80~8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34.0%, 24~28세에 41.9%, 26~30세에 38.9%, 30~34세에 40.3%, 34~38세에 36.7%로 나타난다. 이 코호트는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높은 일치 비율을 보인다. 90~9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45.1%, 24~28세에 45.4%, 26~30세에 45.5%를 나타내며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일치 비율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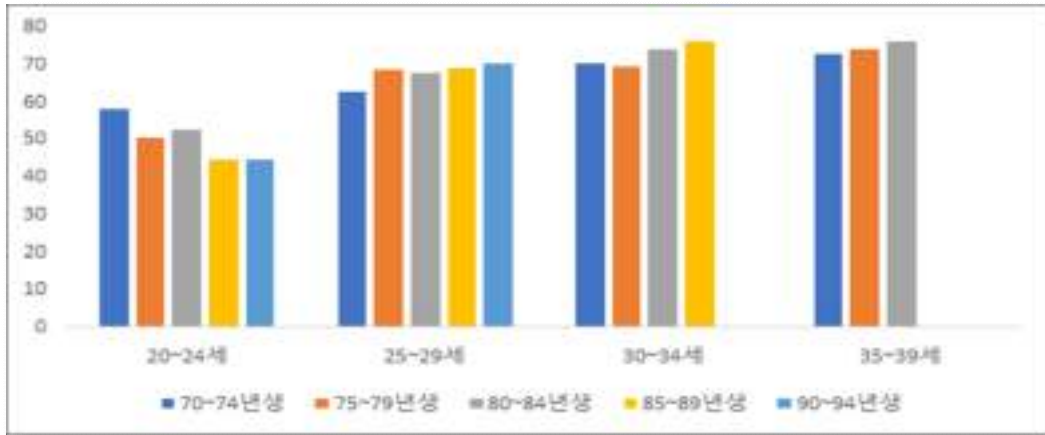
제2절 취업

1. 고용률

코호트별 고용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로 계산하는데 이때 취업자는 경제활동상태 구분 코드가 ‘취업자’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코호트별 고용률은 코호트별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코호트의 총 취업자 수를 바탕으로 가중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세별로 총화하여 가중값이 산정된 관계로 코호트별 비교 연령대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연령 계층 항목을 이용하여 지표를 산출함에 따라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교육수준 등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할 때와 비교 연령대가 달라지게 되었다.

코호트별 고용률 산출결과 <그림 3-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에 따라 20~24세 고용률은 편차가 컸지만, 30대 이후 고용률은 거의 모든 코호트에서 7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4세 기준으로 70~74년생 코호트는 58.0%의 고용률을 나타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85~89년생은 4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0~34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75~79년생은 69.6%로 70%를 밑돌았지만, 다른 코호트들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85~89년생은 76.1%로 가장 높았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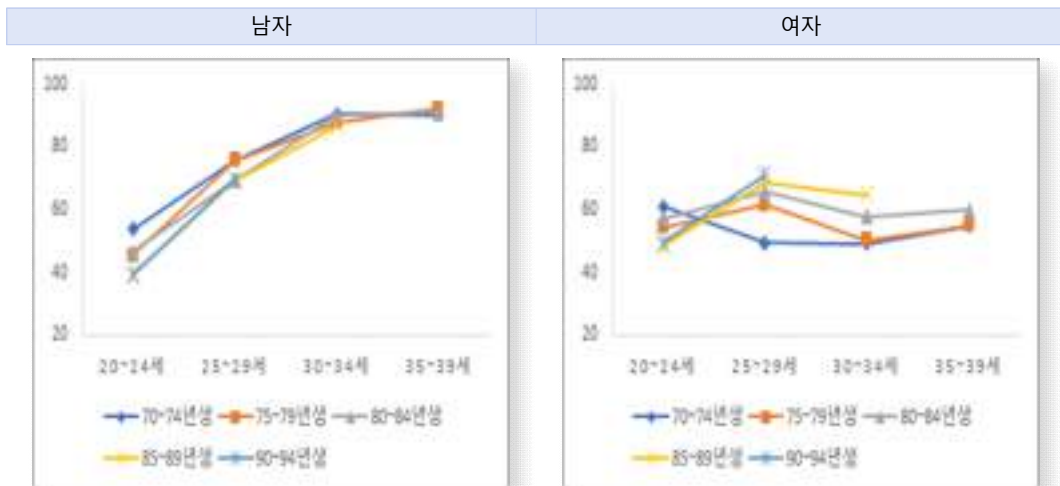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9> 코호트별 고용률

코호트별 고용률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10>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남자는 코호트에 상관없이 20~24세부터 35~39세까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4세 남자의 고용률은 모든 코호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35~39세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5~39세에 70~74년생(90.1%), 75~79년생(92.1%), 80~84년생(91.1%) 모두 90%가 넘는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자의 고용률 변화는 전반적으로 남자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코호트에 따라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70~74년생 여자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0> 코호트별 및 성별 고용률

의 고용률은 20~24세에 6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5~29세와 30~34세에 각각 49.3%와 49.0%로 낮아진 후에 35~39세에 다시 54.9%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다른 코호트의 여자 고용률은 20~24세에 비해 25~29세에 상승하다가 오히려 30~34세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84년생 여자의 경우, 20~24세의 고용률(57.3%)이 25~29세에는 65.7%로 높아졌지만, 30~34세에는 57.6%로 낮아졌다. 이러한 양상은 늦게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으로써 여자의 노동시장 참여 시기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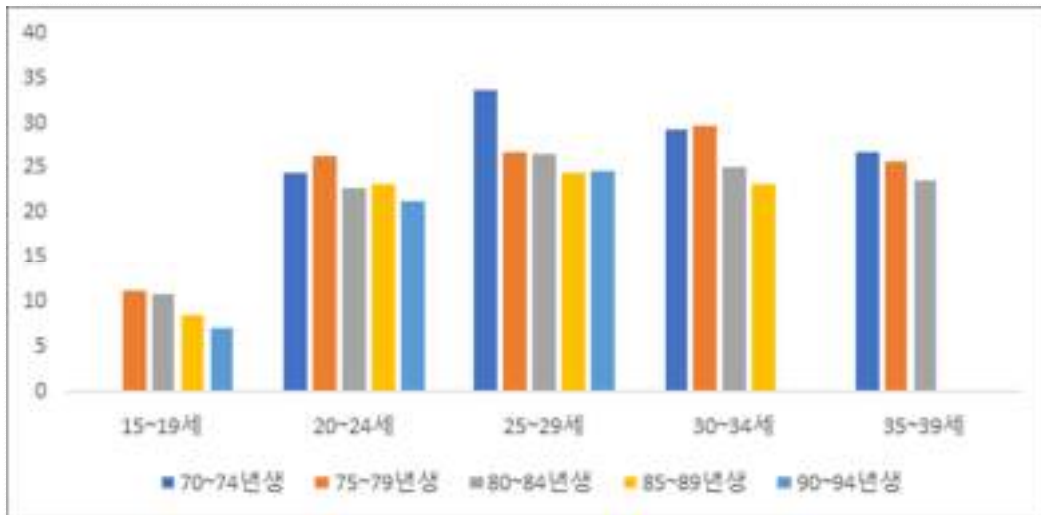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일반적으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데 성인 초기에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실업자와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EU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주목하는 개념이다(김기현 외, 2018). 국제적으로 청년 니트 비율은 “15~29세 청년 가운데 고용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직업훈련 체계가 다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라 이러한 조작적 정의가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한국에서의 많은 공공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는 별도의 학위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니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년 니트 개념 수립 시도가 있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김유선(2017)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그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인 니트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으로 표현한다.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을 코호트별로 추정하기 위해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비율은 청년인구에서 재학생 인구와 재학생이 아닌 취업자 인구를 뺀 규모를 청년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을 추정한 결과, <그림 3-1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그 비율이 정점에 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 직후에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70~7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서 24.4%, 25~29세에서 33.7%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30대 초반

(30~34세)에도 29.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75~79년생 코호트는 15~19세에서 그 비율이 11.2%로 시작하지만, 20~24세에 들어서면서 26.3%로 크게 증가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30~34세에서는 29.8%까지 높아진다. 80~84년생 코호트는 15~19세 구간에서는 10.8%로 시작한 후, 20~24세에 22.8%로 증가한 뒤 25~29세에서 26.5%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앞선 두 출생 코호트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85~89년생 코호트는 15~19세에서 8.6%로 시작해 앞선 코호트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20~24세에서 23.2%로 증가하여 같은 연령대 80~84년생 코호트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90~94년생 코호트는 15~19세에 7.0%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 코호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24세에서는 21.3%로 급속히 증가하고, 25~29세에서는 24.6%를 기록하여 같은 연령대 85~89년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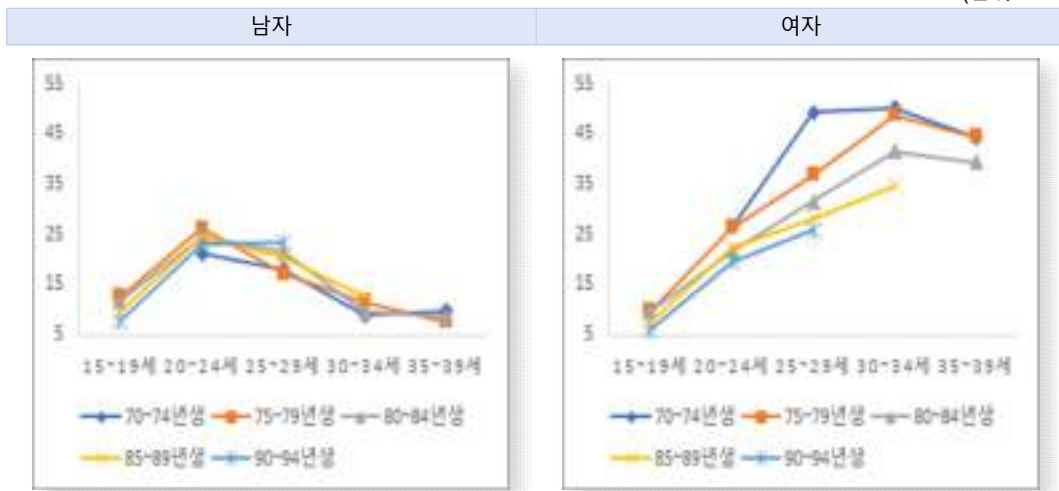
<그림 3-11> 코호트별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

<그림 3-12>에서는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을 성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는 20대에 그 비율이 정점을 찍은 후 30대가 되면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자는 20대 후반부터 그 비율이 상승하여 남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여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에서 그 비율은 20~24세에 21.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여, 25~29세에 18.1%, 30~34세에 9.0%로 하락하고 35~39세에는 9.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75~79년생은 15~19세에 12.6%로 시작해 20~24세에 26.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

차 감소하며, 35~39세에는 7.7%까지 내려간다. 80~84년생 코호트에서는 15~19세에 11.9%로 출발해 20~24세에 24.5%, 25~29세에 21.6%를 기록하며 이후 10% 이하로 떨어진다. 85~89년생 남자는 15~19세에 9.7%에서 시작해 20~24세에 24.4%로 증가한 후 30대에 이르러 12.7%까지 하락한다.

여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26.5%를 기록한 후 25~29세에는 49.4%로 급증하고, 30~34세에 50.3%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 35~39세에는 44.3%로 소폭 감소한다. 75~79년생 여자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 20~24세에 26.4%, 25~29세에 36.9%, 30~34세에 48.9%를 기록하며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 80~84년생 여자는 20~24세에 21.6%를 보이며, 이후 25~29세에 31.6%, 30~34세에 41.6%까지 상승하다가 35~39세에는 39.5%로 약간 감소한다. 85~89년생 여자 역시 15~19세에 7.5%에서 시작해 20~24세에 22.3%, 25~29세에 28.3%, 30~34세에 34.7%로 꾸준히 상승하며 성인기 초반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2> 코호트별 및 성별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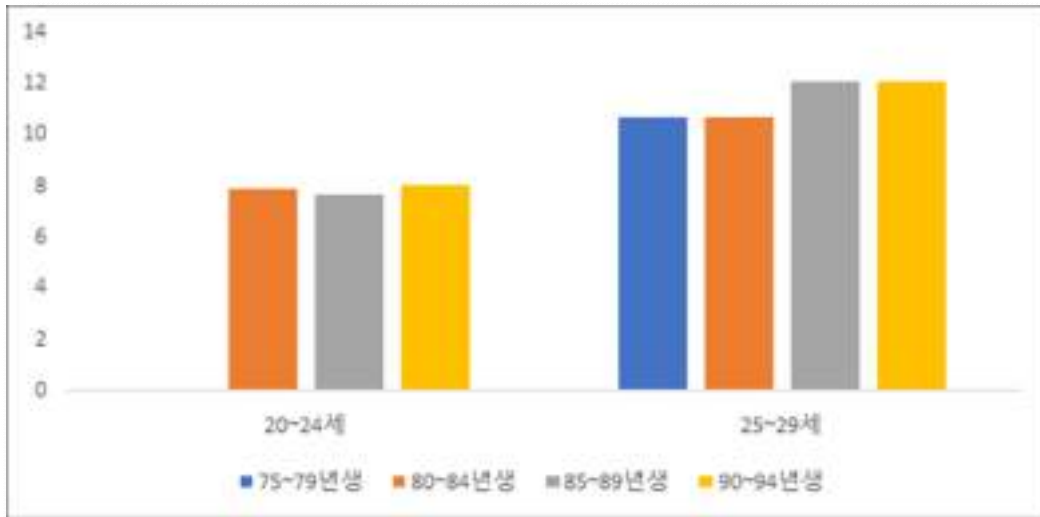
3. 첫 취업 전 소요 기간

첫 취업 전 소요 기간을 코호트별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청년층 부가 조사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고 연령 또한 15~29세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코호트별 가용자료의 한계로 75~79년생, 80~84년생, 85~89년생, 90~94년생 등 4개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령대는 20~24세와 25~29세에 한정하였다. 또한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코호트에서 그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75~79년생 코호트는 데이터의 한계로 20~24세 때의 정보를 찾을 수는 없으나 25~29세 구간에서 첫 취업까지 평균 10.7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첫 취업까지 평균 7.8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5~29세 구간에서는 10.70개월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85~89년생 코호트는 20~24세 때 첫 취업까지 평균 7.71개월이 소요된 반면, 25~29세에서는 12.05개월로 그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90~94년생 코호트의 경우 20~24세에서 첫 취업까지 평균 8.06개월이 소요되었고, 25~29세에서는 12.0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5~89년생 코호트와 비교하면 20~24세에서도 첫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3> 코호트별 첫 취업 전 소요 기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1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짧지만, 최근 코호트에서는 소요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남자와 여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75~79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25~29세 구간에서 13.24개월인 반면, 여자는 8.40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코호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게 첫 취업을 이룬 경향을 보여준다. 이 차이는 해당 연령대 남자가 군 복무로 인해 휴학과 복학으로 학업과 노동시장

진입에 지연을 겪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84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20~24세에서 13.11개월, 25~29세에서 13.76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20~24세에서 5.51개월, 25~29세에서 7.96개월로 남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취업을 완료했다. 다음으로 85~89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20~24세에서 13.32개월, 25~29세에서 13.88개월로 앞선 코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20~24세에서 5.41개월, 25~29세에서 10.44개월로 여전히 남자보다 빠르지만, 25~29세 구간에서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90~94년생 코호트에서는 남자가 20~24세에 11.38개월, 25~29세에 12.70개월이 걸린 반면, 여자는 20~24세에 6.43개월, 25~29세에 11.4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코호트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성별 간 소요 기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25~29세 구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단위 : 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4> 코호트별 및 성별 첫 취업 전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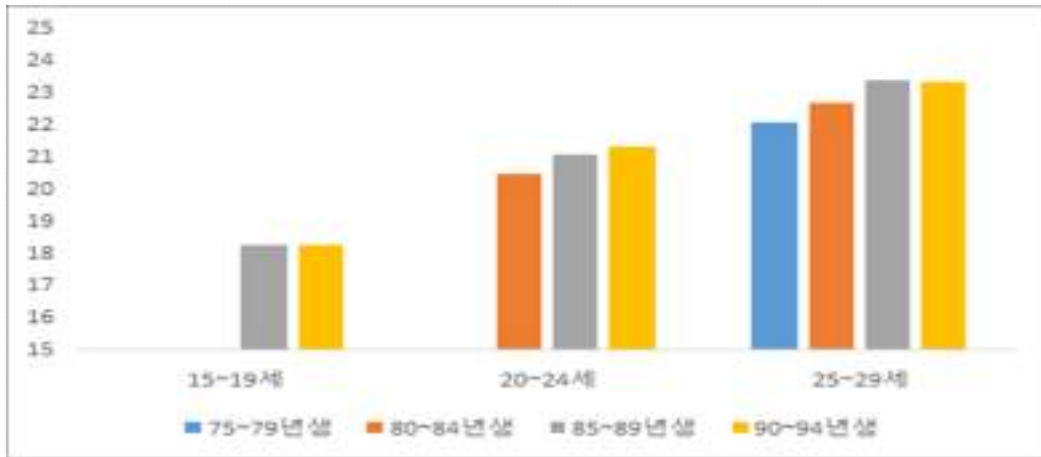
4. 첫 일자리 취업 연령

첫 일자리 취업 연령 추정 역시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첫 취업 전 소요 기간 지표에서 언급한 청년층 부가조사의 코호트별 가용자료의 한계로 70~74년생을 제외하고 75~79년생, 80~84년생, 85~89년생, 90~94년생 등 4개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첫 일자리

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교육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을 분석하였다. 연령대는 15~19세, 20~24세, 25~29세에 초점을 맞추었고, 코호트별 성별 비교는 25~29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가용항목의 한계로 출생년과 첫 일자리 취업 년을 이용하여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을 산출하였다.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을 코호트별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취업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25~29세 기준으로 75~79년생 코호트의 평균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은 22.12세였지만, 80~84년생은 22.72세, 85~89년생은 23.4세, 90~94년생은 23.36세로 나타났다. 20~24세의 경우, 85~89년생(21.11세)과 90~94년생(21.34세) 모두 80~84년생의 20.49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15~19세 기준으로 85~89년생(18.26세)보다 90~94년생(18.29세)이 근소하지만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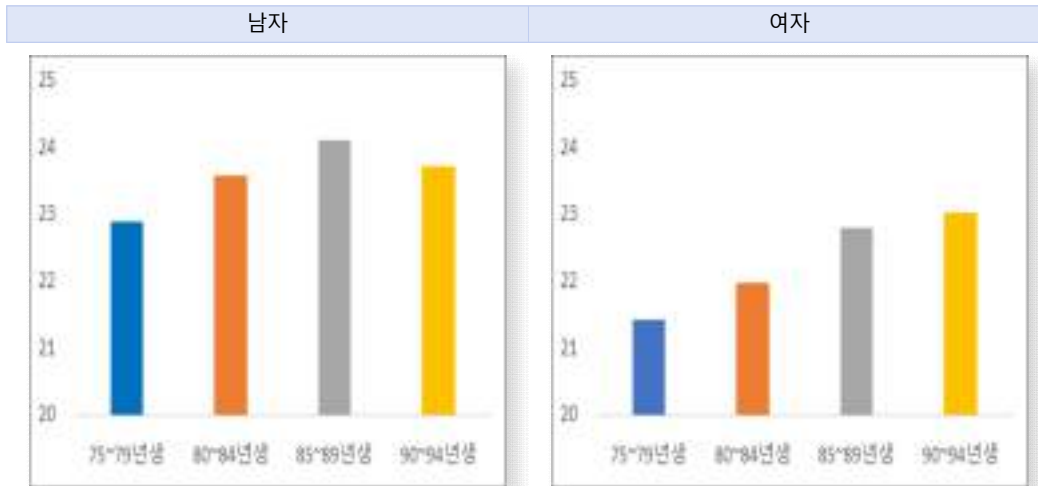
주: 첫 일자리 취업연령=(첫 일자리 취업년-출생년)

<그림 3-15> 코호트별 첫 일자리 취업 연령

<그림 3-1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5~29세에서 남자와 여자의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남자의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다가 가장 최근의 코호트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남자 75~79년생 코호트에서 25~29세의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은 22.89세였지만, 80~84년생 코호트는 23.56세, 85~89년생은 24.10세, 90~94년생 코호트는 23.71세였다. 같은 연령대에 여자의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은 남자보다 전반적으로 빠르지만, 코호트별로 그 경향에 차이가 있다. 80~84년생 여자의 첫 취업 연령은 21.96세로 남자보다 약 1.6년 정도 빠르며, 85~89년생 코호트에서는 22.78세로 상승하였지만 같은

코호트의 남자보다는 약 1.3년가량 빠르다. 하지만 90~94년생 여자의 경우 23.01세로 나타나며, 같은 코호트 남자와의 격차가 0.7년으로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여자가 첫 취업에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위 : 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6> 코호트별 및 성별 첫 일자리 취업 연령(25~29세 기준)

5.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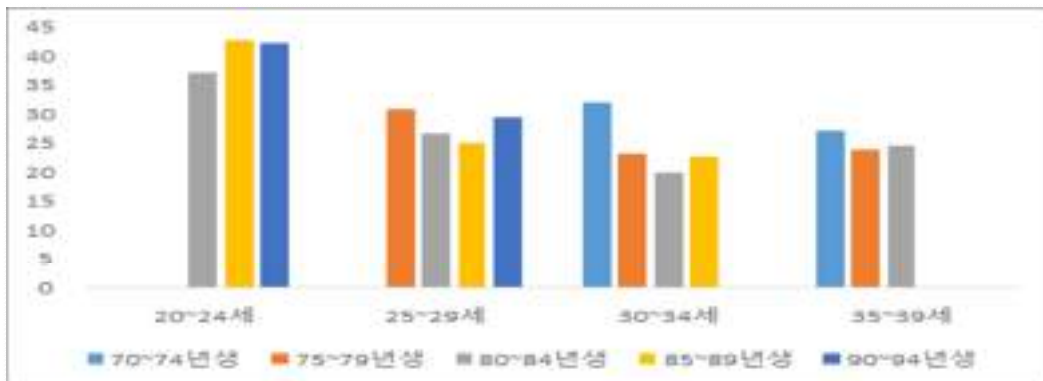
가. 비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2019년 자료부터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20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하므로 2019년 기준 이용자료를 통해 산출된 코호트의 연령대(80~84년생 코호트의 35~39세, 85~89년생 코호트의 30~34세, 90~94년생 코호트의 25~29세)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이전과 단순비교가 곤란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비정규직은 현재 종사상지위 코드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인 사람 가운데 다음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 계속 근로 가능한데 그 사유가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근속기간 제한 사유가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묵시적,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 경우
- 근로시간 형태가 '시간제근로'인 경우
- 단기 근로기간 형태이거나 급여 수령위치가 '파견업체', '용역업체'인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거나 가정에서 근로하는 경우

분석 결과 <그림 3-1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거의 모든 코호트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20~24세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40% 내외이고, 35~39세에도 4명 가운데 한 명가량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70~74년생 코호트는 30~34세와 35~39세 구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32.0%와 27.2%로 나타난다. 이 코호트는 다른 코호트에 비해 30대 후반까지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준다. 75~79년생 코호트는 25~29세에 30.8%, 30~34세에 23.1%, 35~39세에 23.9%의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한다. 이 코호트는 30대에 접어들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37.2%, 25~29세에 26.6%, 30~34세에 19.9%와 35~39세에 24.5%의 비율을 보인다. 85~89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2.7%, 25~29세에 25.1%, 30~34세에 22.7%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90~94년생 코호트의 경우 20~24세에 42.3%, 25~29세에 29.4%의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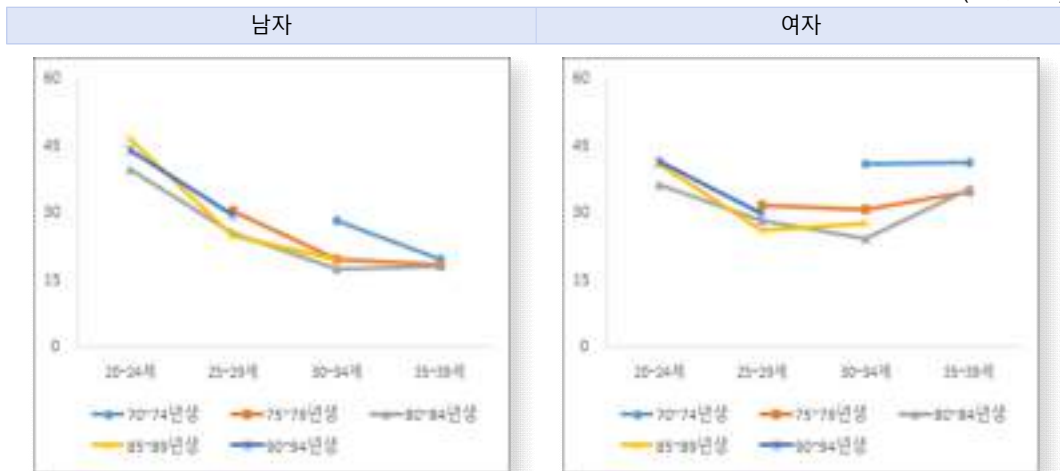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7> 코호트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3-18>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초기 청년기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만 이후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70~74년생 남자 코호트는 30~34세에서 27.8%, 35~39세에서 19.3%의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한다. 75~79년생 남자 코호트는 25~29세에 30.2%, 30~34세와 35~39세에서 각각 19.3%와 17.9%로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80~84년생 남자 코호트에서는 20~24세에 39.5%, 25~29세에 25.2%, 30~34세와 35~39세에 각각 17.3%와 17.9%로 감소하였다. 85~89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서 46.2%, 25~29세에서 24.5%, 30~34세에서 19.4%로 나타나며, 이전 코호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여자의 경우, 20대 중반 이후 남자보다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다. 70~74년생 여자 코호트는 30~34세에서 40.5%, 35~39세에서 40.8%로 남자보다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다. 75~79년생 여자 코호트는 25~29세에 31.5%, 30~34세에 30.5%, 35~39세에 34.4%로 나타나며, 30대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80~84년생 여자 코호트에서는 20~24세에 35.9%, 25~29세에 28.0%, 30~34세에 23.9%와 35세~39세에 35.1%로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85~89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서 40.6%, 25~29세에서 25.8%, 30~34세에서 27.5%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남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90~94년생 여자 코호트에서는 20~24세에 41.3%, 25~29세에 29.6%로 나타나며, 청년기 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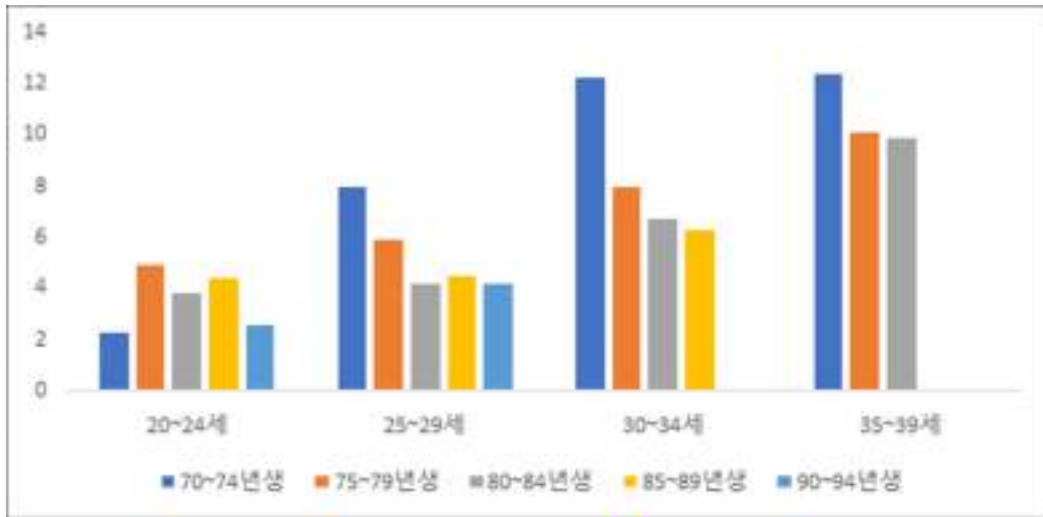
<그림 3-18> 코호트별 및 성별 비정규직 비율

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수’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가 활용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3-1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코호트별로 고용원 없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0~7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2.3%, 25~29세에 8.0%, 30~34세에 12.2%, 35~39세에 12.4%의 비율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코호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75~79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9%, 25~29세에 5.9%, 30~34세에 7.9%, 35~39세에 10.1%로 나타났다. 80~84년생 코호트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24세에서 3.8%, 25~29세에서 4.2%, 30~34세에서 6.8%, 35~39세에서 9.9%였다. 85~89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4%, 25~29세에 4.5%, 30~34세에 6.3%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90~94년생 코호트는 20~24세와 25~29세에서 각각 2.5%와 4.1%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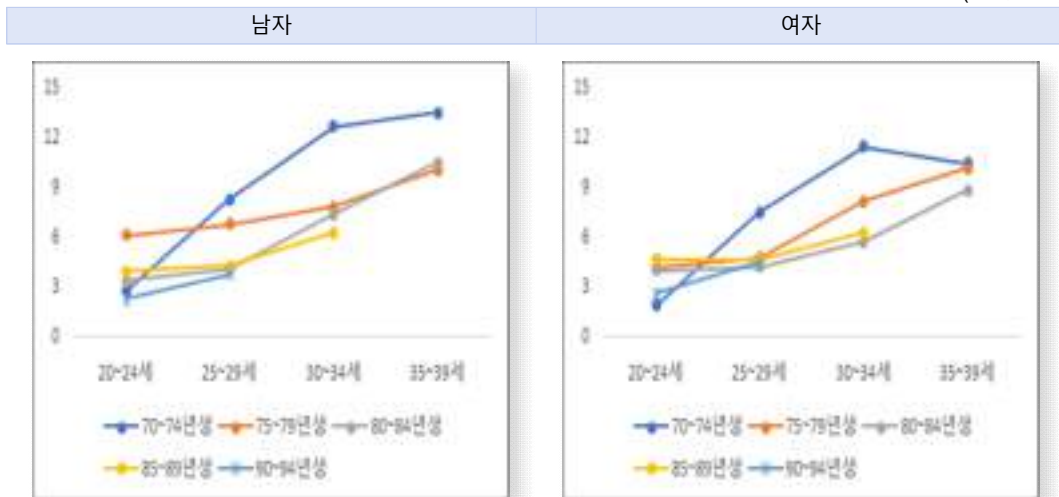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19> 코호트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2.8%, 25~29세에 8.3%, 30~34세에 12.7%, 35~39세에 13.5%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75~79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6.1%, 25~29세에 6.8%, 30~34세에 7.8%, 35~39세에 10.1%로 나타난다. 80~84년생 남자 코호트에서는 20~24세에 3.4%, 25~29세에 4.1%, 30~34세에 7.4%, 35~39세에 10.5%를 기록했다. 85~89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3.9%, 25~29세에 4.3%, 30~34세에 6.3%로 나타났고, 90~94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2.3%, 25~29세에 3.8%를 기록했다. 한편 여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1.9%, 25~29세에 7.5%, 30~34세에 11.4%, 35~39세에 10.4%를 기록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지만, 이 코호트 여자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75~79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4.2%, 25~29세에 4.8%, 30~34세에 8.2%, 35~39세에 10.1%로 나타났으며, 80~8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4.0%, 25~29세에 4.2%, 30~34세에 5.7%, 35~39세에 8.9%를 기록했다. 85~89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와 25~29세에 각각 4.7%로 동일한 비율을 보이며, 30~34세에서는 6.3%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90~9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2.6%, 25~29세에 4.5%를 기록하며 앞선 코호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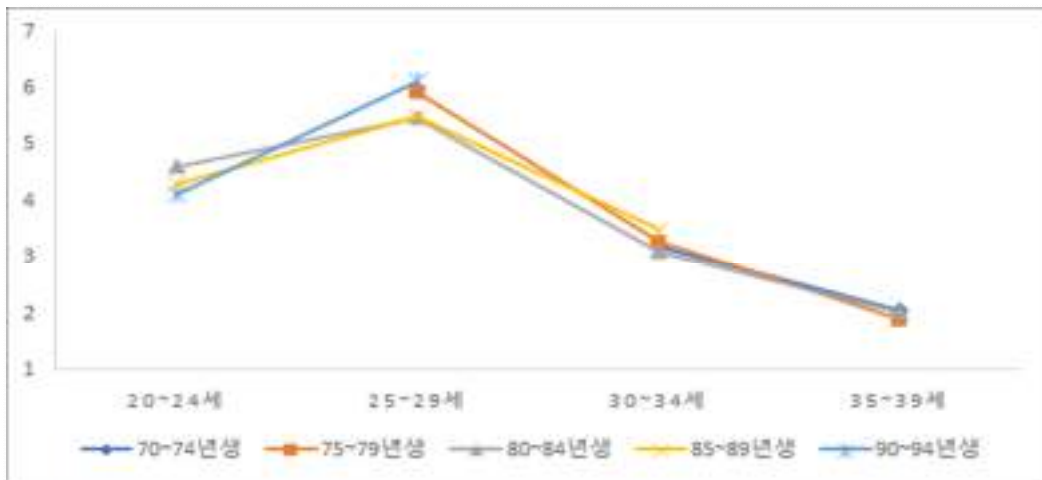
<그림 3-20> 코호트별 및 성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6.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정도를 코호트별, 연령대별, 성별로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뜻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수도권에 해당한다. 이동률은 주민등록 ‘연앙인구’ 대비 ‘이동자 수’로 계산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을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이동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90~94년생 코호트는 다른 앞선 코호트들보다 20대 중후반에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70~74년생 코호트는 30~34세에서 3.2%, 35~39세에서 2.1%의 이동률을 기록했고, 75~79년생 코호트는 25~29세에서 5.9%, 30~34세에서 3.3%, 35~39세에서 1.9%를 나타냈다. 80~8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6%, 25~29세에 5.5%, 30~34세에 3.1%, 35~39세에 2.0%였고, 85~89년생 코호트는 20~24세와 25~29세에 각각 4.3%와 5.5%의 이동률을 보인 후, 30~34세에서는 3.5%로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90~94년생 코호트는 20~24세에 4.1%로 다른 코호트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5~29세에는 6.1%로 코호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이동률을 기록했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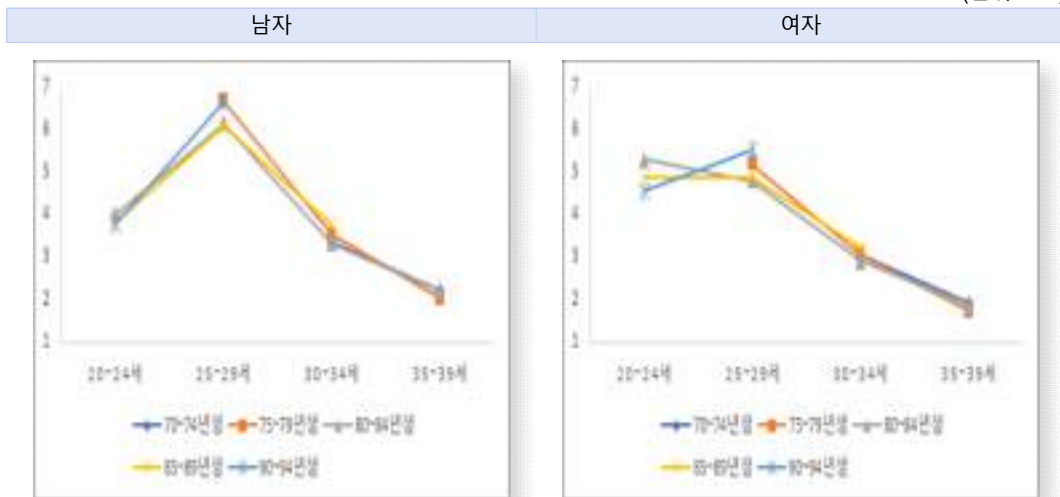
<그림 3-21> 코호트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률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2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 모두 청년기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

난다. 다만 여자가 더 젊은 연령인 20~24세에서 남자보다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이 높은 것이 발견된다. 먼저 남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30~34세에 3.3%, 35~39세에 2.2%의 이동률을 기록했고, 75~79년생 코호트는 25~29세에 6.6%로 이동률이 정점을 기록한 후, 30~34세에는 3.5%, 35~39세에는 2.0%로 감소했다. 80~84년생 남자 코호트 역시 20~24세에 4.0%, 25~29세에 6.1%, 30~34세에 3.3%, 35~39세에 2.2%로 20대 후반에 이동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85~89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와 25~29세에 각각 3.8%와 6.1%로 높은 이동률을 보이며, 30~34세에는 3.8%로 다소 감소한다. 90~94년생 남자 코호트는 20~24세에 3.8%, 25~29세에 6.6%를 기록하며 다른 코호트와 유사한 이동 패턴을 보인다.

여자의 경우, 70~74년생 코호트는 30~34세에 3.1%, 35~39세에 1.9%의 이동률을 기록하며, 남자보다 이동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75~79년생 여자 코호트는 25~29세에 5.2%로 이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후 30~34세에 3.0%, 35~39세에 1.7%로 감소하였다. 80~8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5.3%, 25~29세에 4.8%, 30~34세에 2.9%, 35~39세에 1.9%를 나타내며 남자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이동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85~89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와 25~29세에 각각 4.9%로 동일한 비율을 보인 후, 30~34세에는 3.2%로 감소했다. 한편 90~94년생 여자 코호트는 20~24세에 4.5%, 25~29세에 5.5%로 나타나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그림 3-22> 코호트별 및 성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률

제3절 자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것이고, 자립에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 자립이 있다. 경제적 자립은 주로 일자리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주거 자립은 경제적 자립과 함께, 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지표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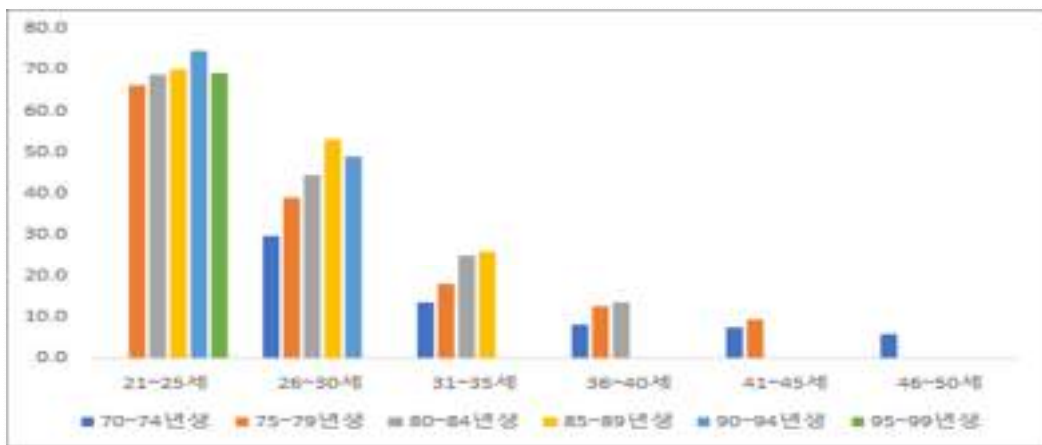
부모 동거 미혼 청년 자녀 관련 지표는 인구총조사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미혼 ‘자녀’인 경우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를 추출하여 미혼 자녀의 총수로 구성하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은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자녀’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는 가구주의 관계에 ‘부모’가 있는 경우를 추출하였다. 또한, 한 가구에 미혼인 가구주와 그 부모가 있고,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미혼인 경우도 미혼 청년으로 포함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수치를 해당 연령대 인구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3-23>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자녀의 비율 지표를 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대 초반에서는 해당 연령대 인구 전체의 66~75%, 20대 후반에서는 30~53%, 30대 초반에서는 14~26%, 30대 후반에서는 8~14%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대 후반은 자료의 한계로 70년대 초반 코호트만 산출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부모 동거 비율은 약 6%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과 후반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 동거 비율이 증가하다가 가장 최근 코호트(20대 초반: 95~99년생 코호트, 20대 후반: 90~94년생 코호트)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가장 최근 코호트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다음 인구총조사 결과를 비교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감소 경향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sthaeghe(2010)의 연구에서는 유럽 청년들의 독립 경향을 설명하면서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북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청년들의 조기 독립이 비교적 일반적이는데, 이는 복지 제도의 지원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즉, 이 지역들에서는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혼전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에는 학생 장학금, 청년 실업수당, 학생 전용 주택,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18세 이상 독립 생활자에 대한 최소 소득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독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강한 가족 중심 문화와 경제적 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즉, 남유럽의 가족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와 상호 지원을 중요시하여 자녀의 독립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 시장 역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주택 비용이 높아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제도나 주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청년들이 독립하려 할 경우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다.



자료: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 주: 1) 부모동거 미혼청년 비율=해당 코호트 중 부모동거 미혼청년/해당 코호트 전체청년
- 2) 미혼청년이 가구주이면서 가구원 중 '부모'가 있는 경우
- 3) 미혼청년의 가구주 관계가 '자녀'인 경우
- 4) 미혼가구주와 그 부모가 있는 가구에 미혼청년이 가구주의 '형제자매'로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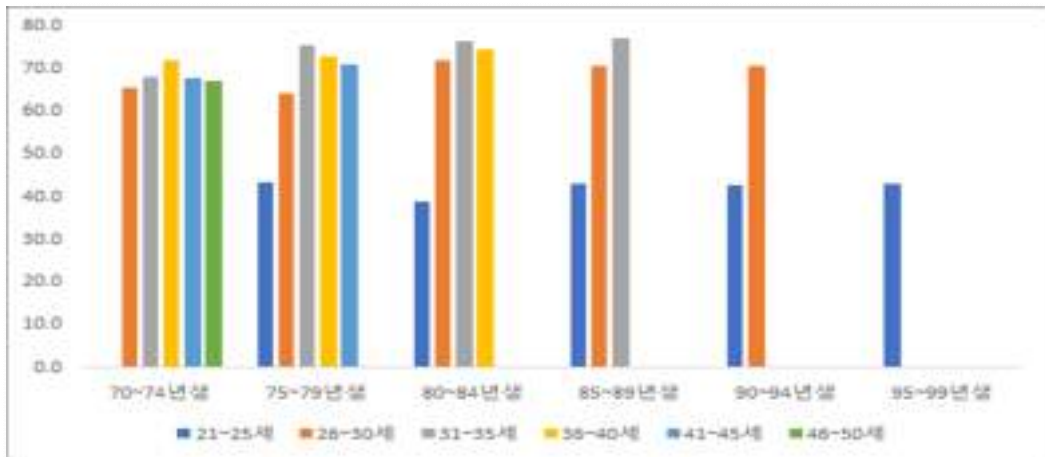
<그림 3-23> 부모 동거 미혼 청년 자녀 비율(%)

위의 설명에 따르면 남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최근 우리 청년들의 독립이 활성화되었다면 북유럽 및 서유럽과 같이 복지 제도의 지원이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공급 정책을 확대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독립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20대 초반인 경우, 대부분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는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집에서 먼 곳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독립하는 경향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5년 인구총조사의 결과를 산출하여 장기적 경향을 확인

하고, 감소 경향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부모 동거 미혼 청년 비율로는 주거 자립은 확인할 수 있지만, 경제적 자립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경제활동 비율을 산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혼 청년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부모 동거 미혼 청년 자녀의 경제활동 비율 지표에서의 경제활동은 관련 문항의 ‘주로 일하였음’,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을 통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혼자 총수는 앞서 도출한 수치를 이용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자는 앞서 도출한 미혼자에 상기 경제활동 조건을 추가하여 도출하였다.



자료: 인구총조사(표본)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주: 부모동거 미혼청년 자녀의 경제활동 비율=부모동거 미혼청년 중 취업(일함+틈틈이일함+일시휴직) / 부모동거 미혼청년

<그림 3-24> 부모 동거 미혼 청년 자녀의 경제활동 비율(%)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자녀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을 보면, 21~25세의 경우에는 모든 코호트에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경제활동 비율이 낮았지만, 코호트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는 모든 코호트에서 대체로 경제활동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코호트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 후반의 경우, 70년대 코호트가 다른 코호트와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30대 전반으로 가면, 70년대 전반 코호트에서만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결 론

생애과정 이행에 있어서 청년기는 학교 졸업,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의 중요한 과정들이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일생에 걸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청년기의 교육·취업 부문에 대한 본 연구의 특징은 2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코호트 분석이 이루어졌고, 코호트 분석 중에서도 가능한 종단면 분석을 하려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코호트 분석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특정 시점에서 코호트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횡단면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청년 집단 간의 다양한 격차(disparities)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동일한 코호트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코호트 별로 생의 궤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면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만, 동일한 코호트가 아닌 자료의 가용성 측면에서 가공의 코호트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코호트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코호트 간의 비교 분석 및 특정 연령대의 코호트 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코호트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대규모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은 가공의 코호트 구축으로 인한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청년기의 교육 및 취업 부문 지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여자의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이 남자를 추월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26~30세 기준으로 볼 때 70년대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대졸 이상 비율이 높았지만, 80~84년생 코호트부터 여자의 대졸 이상 비율이 남자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비율에서도 80~84년생 코호트부터 여자가 남자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인 교육 기회 충족 비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높아졌으며, 본인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 역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25~29세 이후부터 출생 코호트가 늦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첫 취업까지 소요 기간은 과거 코호트보다 최근 코호트에서 길어지는 추세가, 첫 일자리 취업 연령 또한 세대가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30~34세 기준으로 볼 때 70년대 초반 코호트는 비정규직 비율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 모두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일자리 안정성이 타 코호트에 비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정규직으로 퇴직한 후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로 생각되며, 30대 초반부터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은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너무 일찍 안정적인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년들의 고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0년대에 출생한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IMF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성이 현재 청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일자리 안정성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재 자녀 부양 및 부모 부양의 이중 부양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김유경 외, 2018), 정부는 현재의 청년뿐만 아니라 현재 중장년이 된 과거 청년의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의 증가는 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복지 비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코호트가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각종 공무원 시험 및 대기업 등의 입사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으며,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할 때 20대 중후반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립과 관련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비율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지만 가장 최근 코호트(20대 초반: 95~99년생 코호트, 20대 후반: 90~94년생 코호트)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북·서유럽의 경우, 청년들의 이른 독립이 일반적인데 이는 두터운 복지제도 덕분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정부의 청년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청년들의 독립을 어느 정도 촉진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경향이라면 관련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8).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1-29.
- 계봉오, 황선재. (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1-28.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워킹페이퍼.
- 김미경, 이창무, 송기범. (2014). 세대(탄생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실용적 장기 주택수요 추정, *국토계획* 49(8), 35-48.
-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SSUE PAPER.
- 대한민국정부. (2024).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천영민 정승철. (2018). 4년제 대졸자의 졸업유예 선택 이유 및 효과. **2018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발표분과 9-1).
- 통계청.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 Cobb-Clark, B. A. (2008). Leaving home: What economics gas to say about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ustralians, *IZA Discussion Paper*, No. 3309.
- Cordón, J. A. F. (1997). Youth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6), 576-607.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 (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and returning home*.
- Halfon, N., Forrest, C. B., Lerner R. M. & Faustman, E. M. (2018). *Handbook of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Springer.
- Mason, K. O., & Fienberg, S. E. (1985).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 Springer-Verlag.
- Lesthaeghe, R.(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Norman B. Ryder.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 Sironi, M., & F. F. Furstenberg. (2012). Trends in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1973-2007,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609-630.

Abstract

A Cohort-Based Comparative Study on Life Course Transitions: Education and Employment

An Sang-Kun, Hyun Dai-Hwan, Shin Young-Kyu

Since the mid-20th century, Korean has experienced various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such as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population aging, and automa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uch continuous socioeconomic changes are known to have influenc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thereby creating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of the youth entering adulthood.

On the other hand, the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began to fall below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fertility in 1983 and has continued to be low for the past 4 decades, recording the lowest figure of 0.72 in 2023. In this situation of sustained low birth rates, as a part of the research of "A Comparative Study of Life Course Transitions by Cohort: Focusing on the Youth",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statistical support for the government policy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by cohor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education and employment by cohort, in particular, from the cohort born between 1980 and 1984, the proportion of female college graduates or higher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counterparts. Second,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tended to increase as the birth cohort got later in their late 20s to 30s, but the period until first employment tended to be delayed in recent cohorts, and the age at first employment tended to increase as the generation got later. Third,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tended to decrease with age in most cohorts, but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without employees increased. Fourth, the percentage of the youth who didn't work or receive education recorded over 20% in all cohorts after the age of 20. Fifth, the rate of obtain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 rate of matching majors and occupations tended to increase in recent birth cohorts. Finally, the most recent birth cohort, those born between 1990 and 1994, showed a higher rate of moving to the Seoul Capital Area in their late 20s than other cohor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n exploratory study focused on indicators fo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sectors of the youth by cohort. It is expected to carry out more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he various phenomena found out b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Key words: Cohort, youth, education, employment

● 연구진

- 안상건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현대환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 주무관)
-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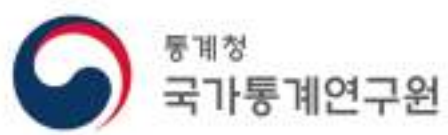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4-12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교육·취업

인 쇄	2025년 3월
발 행	2025년 3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